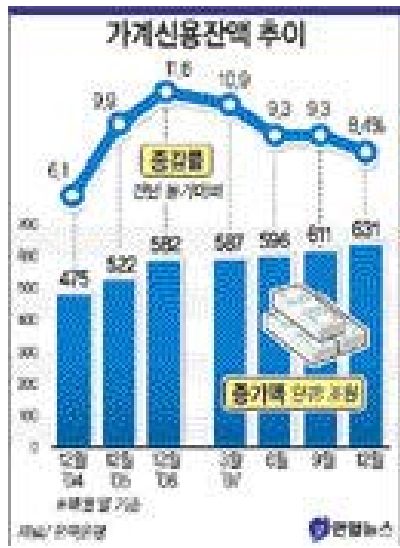


가계 빚 630조... 가구당 3,842만원



담보대출 억제로 가계대출은 크게 둔화 신용카드 등 외상구매 급증이 소비 주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48조7천억원 증가하면서 총 가계 빚 규모가 63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대폭 둔화했으나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가 눈에 띄게 늘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

(판매신용)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630조6천786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2007년 추계 가구수(1천641만7천423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당 부채규모는 3천842만원에 해당한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액은 48조7천151억원으로 2006년의 60조4천676억원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 부동산 담보대출 억제조치로 예금은행의 가

계대출 증가액이 2006년 40조7천84억원에서 지난해는 17조4천586억원으로 대폭 둔화했다.

그러나 상호금융을 포함한 신용협동가구의 가계대출은 9조6천132억원에서 13조9천311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한 대출은 2조6천789억원에서 3조7천401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작년말 현재 판매신용 잔액은 35조2천814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3조7천49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06년의 증가액 3조5천499억원보다 확대된 것으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외상구매 형태로 가계소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2008년 정부 및 주요기관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KDI	한국은행	삼성연	LG연	현대연	OECD
성장률	6%내외	5.0%	4.7%	4.7%	4.9%	5.1%	5.2%
취업자증가	35만명 내외	-	30만명	-	32만명	-	-
소비자물가	3.3%내외	2.8%	3.3%	3.3%	3.2%	2.8%	2.8%
경상수지	-70억달러내외	-26억달러	-30억달러	-59억달러	-43억달러	-50억달러	-GDP의 0.2%

규제개혁·투자촉진 MB식 '경제살리기'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 뭉 뚫었다

'6% 내외 성장에 취업자는 35만명 증가, 물가는 3.3% 상승, 경상수지는 70억달러 적자. '경제살리기'를 최대의 가치로 내걸고 탄성적인 이명박 정부가 취임 첫날인 올해 달성해 나갈 '나라경제 계획표'를 내놓았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 운용계획은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투자부진과 성장정체, 고령화, 성장동력 부재라는 난제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치열한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산적한 악재 반영해 목표 수정=정부는 우선 올해 '6%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7% 성장에서는 다소 물러섰지만, 그래도 6%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명한 셈이다.

취업자수 목표치도 당초 연간 60만명 증가에서 올해는 35만명 증가로 대폭 수정했다.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새 정부가 2월 말에 출범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5개월째 3%대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물가는 올해 전례로 3.3% 내외에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올해 유가를 배럴당 평균 80달러로 잡았을 때 유가상승으로 65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7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정부 전망과 큰 인식차=이런 경제운용 목표는 참여정부가 새 정부 출범직전인 올해 초 전망했던 수치와는 큰 차이가 난다. 참여정부는 지난 1월초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확정된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4.8% 성장에 취업자는 30만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물가는 3% 내외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도 성장잠재력의 급속한 악화와 투자 마인드 냉각, 민간소비 부진, 물가 상승, 대외여건 악화 등의 악재가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다는 기본 인식은 참여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여건에 대한 인식에서는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면서도 새 정부는 각종 규제 개혁과 혁신 등을 통해 추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전문가, 올 6% 성장엔 버거워=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6% 내외를 유지한 것에 대해 현재의 경기 흐름상 버거운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아지기는 힘든데 현실"이라며 "주식시장과 고용,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새 내수가 받쳐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수출도 겨우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를 개선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빵값도 오른다 제빵업계 10~20%

밀가루 등 각종 식재료와 먹거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빵업계도 제품가격 인상에 나섰다.

과리바게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38개 품목의 가격을 100~200원씩 인상해 스틱소보루, 찹쌀페스트리, 초코칩트위스트 등 인기 제품들이 1천원에서 1천100원으로 100원씩 올랐으며 다른 제품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릴 계획이다.

CJ제일의 푸레쥬르도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치즈가 들어가는 제품이나 경쟁사보다 가격이 낮았던 제품을 위주로 10% 가량 가격을 올렸다. 이에 따라 크림치즈브레드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슈크림빵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다. 크라운베이커리도 이달 안으로 일부 제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폭과 대상제품 등을 조율하고 있다.

양산빵 업체들도 일부 제품가격을 이미 올렸으며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제품도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유류세 10% 인하 광주·전남 주유소 80% 이상 '동침'

정부의 유류세 10% 인하시점에 맞춰 광주·전남을 포함한 서늘지역 주유소 80% 이상이 가격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0일 "광주와 전남지역 모든 지역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 상당수의 80~90%가 유류세 인하분 만큼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정유사 지역 주유소들이 이날 0시부터 바로 가격을 내렸으며 자영주유소들도 대부분 동참했다"고 말하고 "정유사 공급가격이 인하되기에 비싸게 받아온 고물량이 있지만 경쟁 때문에 가격을 내렸다는 것이 자영 주유소 사업자들의 설명이다"고 전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전자는 10일 13Mbps급 속도로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WiBro) 커뮤니케이터(SWT-W100K)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내비게이션과 PMP, 지상파 DMB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단말기에 구현했고 DMB방송과 동영상도 고화질로 볼 수 있다.

2월 생산자 물가 6.8% 급등

원자재 가격 폭등 여파 3년 3개월만에 사상 최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3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8% 상승해 2004년 11월의 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10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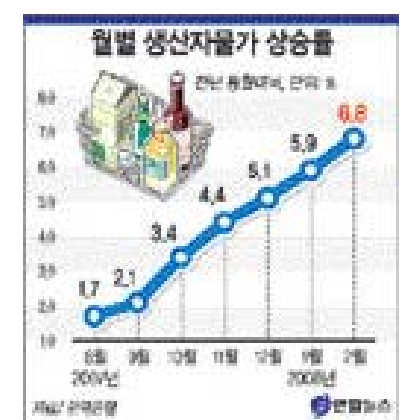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1.7%, 9월 2.1%, 10월 3.4%, 11월 4.4%, 12월 5.1%, 올해 1월 5.9% 등으로 오름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1.1%를 나타내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생산자물가가 급등한 것은 원유와 곡물, 비철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공산품의 가격상승 폭이 컸던 데다 일부 서비스 요금도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라면·과자 등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해외 화학공장의 사고발생과 정비보수 등으로 에틸렌·부타디엔 등 화학제품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면서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비철금속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것도 생산자물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설비투자 20% 늘린다

올해 국내 대기업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지난해보다 크게 늘릴 전망이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업종별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19.9% 늘어난 62조5천억원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면 2004년(24.8%), 2005년(23.5%)에 비하면 여전히 뒤지지만 2006년(10.9%), 2007년(0.7%)에 비하면 크게 늘게 된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세가 클 것으로 예

상되는 업종은 디스플레이(전년 대비 100.8%)와 조선(78.4%), 철강(60.0%) 등이다.

특히 조선은 생산량 급증과 선형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확대가 예상되며 지난해 큰 폭의 투자감소를 보였던 철강업종도 일관제철 건설투자와 신규 설비 증설로 큰 폭으로 투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납품단가연동제 빠르면 상반기 도입

중기청, 업계 의견 수렴 6월 국회 상정 추진

중소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원자재가 납품단가연동제가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관련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나 '대·중소기업간 협력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에서도 '단가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단가 변동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원가를 구성하는 품목의 총액이 100분의 3 이상 변동될 때'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30일 연장가능) 이내 상호 협의의 정한다'고 하도급

법에 신설해 이를 법제화하자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도급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의 통해 오는 6월 임시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납품단가연동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이 차질없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모델별 車보험료 격차 커진다

4월부터 사고 때 수리비가 적게 드는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의 보험료 격차가 더 커질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를 적용한다. 11등급이 위험도가 가장 낮아 보험료가 싸고 1등급은 그 반대이다. 이 제도는 작년 4월 도입됐으며 지난 1년간의 손해율을 반영해 이번엔 최대 ±2등급을 재조정했다.

손보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자사 고객들의 실제 차량별 위험등급(경험손해율)을 반영해 4월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하게 된다.

차량 모델별 위험등급이란 똑같은 사고가 나도 차의 견고성이 나 내구성 등에 따라 수리비, 부품값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등급

을 매긴 것이다.

위험등급은 1~11등급으로 나뉘며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에 적용된다. 11등급이 위험도가 가장 낮아 보험료가 싸고 1등급은 그 반대이다. 이 제도는 작년 4월 도입됐으며 지난 1년간의 손해율을 반영해 이번엔 최대 ±2등급을 재조정했다.

뉴 마티즈와 뉴 SM3·아반떼·투싼·그랜저·신형·무쏘·뉴 에쿠스 등은 2등급 올라가 그만큼 보험료가 싸지게 됐다. 마티즈2·뉴아반떼XD·뉴 SM5·쏘나타 신형·뉴 체어맨·코란도 등은 1등급 상황 조정됐다.

반면 아토스·뉴비라2·그랜저 XG·EF쏘나타·뉴 그랜저 등은 2

등급 하락 조정됐고 마티즈·뉴비라·뉴 율리마·티뷰론 터블런스·에쿠스 등은 1등급 떨어져 보험료가 비싸지게 됐다.

외제차 중에는 BMW·폴크스바겐·혼다·푸조가 1등급 상황 조정됐고 벤츠·아우디·사브는 1등급 떨어졌다.

특히 작년에는 등급간 보험료 차이가 2%로 제한됐으나 올해부터는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등급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더 커질 전망이다.

등급이 그대로 유지됐더라도 보험사가 등급간 보험료 차이를 5%로 확대하겠다고 할 경우 큰 한한 차질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이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기아자동차 광주제일대리점	자동차 카 매니저/자동차 판매(신입/경력/주부가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4	062-574-8011
에스디케이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실안내원(계약직)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3/14	062-571-7113
광주주유소	일반 사무관리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4	062-374-6400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상담직(광주고객지원센터)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3/16	062-370-6800
화인코리아	2008년 각 분야별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7	061-330-4523
신안중공업	각 분야별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7	062-717-5521
동아하이테크	장부2센터 단기프로젝트 (금구)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3/18	02-445-9100
씨에이치솔루션	(주5일)SK텔레콤(송정리) 멀티 CRM센터 고객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3/20	02-456-9799
본스틸	생산직 남자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0	062-946-6600
창역역전문점	전산화담당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0	010-3211-6749
에버트라스트정보기술	전산실 오퍼레이터 신입사원(광주 근무)	초대졸/경력5년	1600~1800	03/22	02-445-1180
대진미디어텍	센스있는 웹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2	062-382-1232
정광디자인	인테리어 현장 기사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3/22	062-376-9040
엠엔에프코리아	웹디자이너, 집합소플래너	초대졸/경력2년	1600~1800	03/22	062-513-895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